

효에 바탕을 둔 분묘제사 통해 공동체 의식 다져

고고학자 임영진 교수가 본

馬韓



<16> 마한의 분묘제사

“조상의 혼이 무덤으로 돌아온다”

무덤에 비석·사당 세우고 분묘제사
사유재산·가족 공동체 중시로 발전
윤리·정치 영향... 유교 성행 가져와

지금까지 4차에 걸쳐 마한의 무덤들을 살펴본
데 이는 무덤이 다른 자료에 비해 보수성이 강하
고 보존이 잘 된 편이어서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데
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.

잘 남아있는 마한의 무덤을 보면 특별한 현상이
확인된다. 무덤 외부에 폐기된 유물들이 매우 많은
것이다. 도굴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고분에서는 내
부에서 많은 부장품이 출토되기는 하지만 무덤 외
부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
과 크게 다르다. 이와 같은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
기는 것일까?

◇종묘제사와 분묘제사

제사의례는 자연 현상에 대한 경외감에서 시작되
었지만 점차 조상의 영혼을 위해 정성을 바치는 행
위로 변화되어 나갔다.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조상
이 남겨준 경작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가 유지되
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.

사람의 영혼을 혼(魂)과 백(魄)으로 구분하면서
혼을 중시하였던 고대 중국에서는 거주지에 마련된
사당(廟)에서 혼을 위한 제사만 이루어졌다. 은허
에서 발굴된 상나라 북쪽에서 종묘제사에 대한 기
록만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.

예기(禮記)에 따르면 혼과 백은 각각의 장소로
분리되어 서로 통합이 없다고 하였다. 죽은 사람과
산 사람의 교감은 하늘에 올라 신이 된 조령(祖靈)

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장소는 사람으로 한정되었
다. 왕실 사당인 종묘에서 조령제사를 실시하면 현
세의 왕과 그 종족집단에게 조상신의 능력이 주어
지는 것으로 믿었다.

분묘제사가 시작된 것은 전국시대이며 죽은 조상
의 혼이 무덤으로 돌아온다는 관념에서 비롯되었
다. 지역 제후들의 발호 속에서 거대한 무덤들이 만
들어지고 그 위에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세워지
기도 하였다. 진시황릉은 주변에 분묘제사를 위한 대
규모의 능침시설이 존재하였음이 밝혀지고 있다.

◇분묘제사의 발전

분묘제사는 사유재산과 가족공동체가 중시되면
서 발전해 나갔다. 한나라 때는 일반 귀족들도 무덤
에 비석과 사당을 세우고 분묘제사를 지냈다. 이로
인해 전통적인 사당(廟)과 무덤(墓)의 이원적 구조
가 무너지고 분묘제사가 종묘제사를 대신하기도 하
였다. 이는 획기적 변혁으로서 윤리·정치적으로도
큰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효를 바탕으로 한 유교의
성행을 가져오기도 하였다.

효에 바탕을 둔 한나라의 분묘제사는 후한 명제
의 사례가 대표적이다. 매년 초하루에 황족과 중신
들이 조정에 모여 황제에게 예를 표하는 행사를 원
회의(元會儀)라 불렀는데 광무제를 이은 명제는 첫
원회의를 선왕의 원릉(原陵)에서 개최하였다.

그 명분은 광무제에게 예를 표하기 위한 것이었
지만 실질적으로는 원회의를 조정에서 열면 중신들
이 자신을 무시하여 불참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
를 막기 위함이었다.

고대 일본에서도 무덤에 선왕을 안치한 다음 무
덤 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왕위 계승의식을 거행
하기도 할 정도로 분묘제사는 중요한 행사였다.

◇마한의 분묘제사

마한의 제사와 관련된 내용은 삼국지와 후한서에
기록되어 있다. '해마다 5월에는 농사일을 마치고
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(중략), 10월에 추수를
끝내고 또 다시 이와 같이 한다. 여러 국읍(國邑)에
서는 각각 한 사람이 천신(天神) 제사를 주재하는



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석실과 파리 번데기 껍질
(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)



나주 북암리 1호분 석실 토기 출토 상황

<석실 폐쇄 전에 이루어진 제사 흔적, 전남대학교박물관 발굴>

데 천군(天君)이라 부른다.' 이는 농경과 관련된 제
천의식 위주이며 분묘제사와는 무관하다.

마한의 분묘제사는 무덤을 통해 알 수 있다. 석실
묘 입구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석실에 시신을 안
치한 다음 행하였던 매장예를 반영하는 것이지만
분구 평탄면이나 주변 도랑에서 출토되는 많은 토
기들은 사정이 다르다.

이 토기들은 분묘제사에서 음식물을 공헌하고 남
겨졌던 것이다. 출토상황을 보면 여러층을 이루고
있어 주기적으로 분묘제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
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
에 마한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.

◇마한의 수릉

수릉은 생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자신의 무덤이
다. 진시황은 13살에 등극한 직후부터 자신의 무덤
인 여산릉을 만들기 시작하였다. 고대 중국에서는
거대한 무덤일수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

미리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았다.
마한에서는 가족묘인 분구묘가 성행하였으므로
두 번째 매장자부터는 수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
수 있었는데 첫 주인공을 위한 수릉도 확인된 바 있
다. 무안 고절리 고분이 그것이다.

이 고분은 서기 500년 전후에 축조된 길이 38m, 높
이 5m 규모의 방형 고분인데 옹관이나 석실 등 매장
시설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. 자신의 무덤이 축조
되어 있었음에도 묻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. 아마도
그 주인공은 530년경 백제에 복속된 뒤에 사망함에
따라 이 큰 무덤에는 묻힐 수 없었을 것이다.

이는 523년에 봉어하여 525년에 안장되었던 백
제 무령왕의 무덤 직경이 22m에 불과하다는 사실
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

무령왕의 경우처럼 사망후 바로 무덤에 묻히지
않고 일정 기간 거치는 것을 빈장(殯葬)이라 하는
데 이는 마한의 무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.

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은 3차례 매장

이루어졌는데 제3차의 주인공은 40대 여성으로 밝
혀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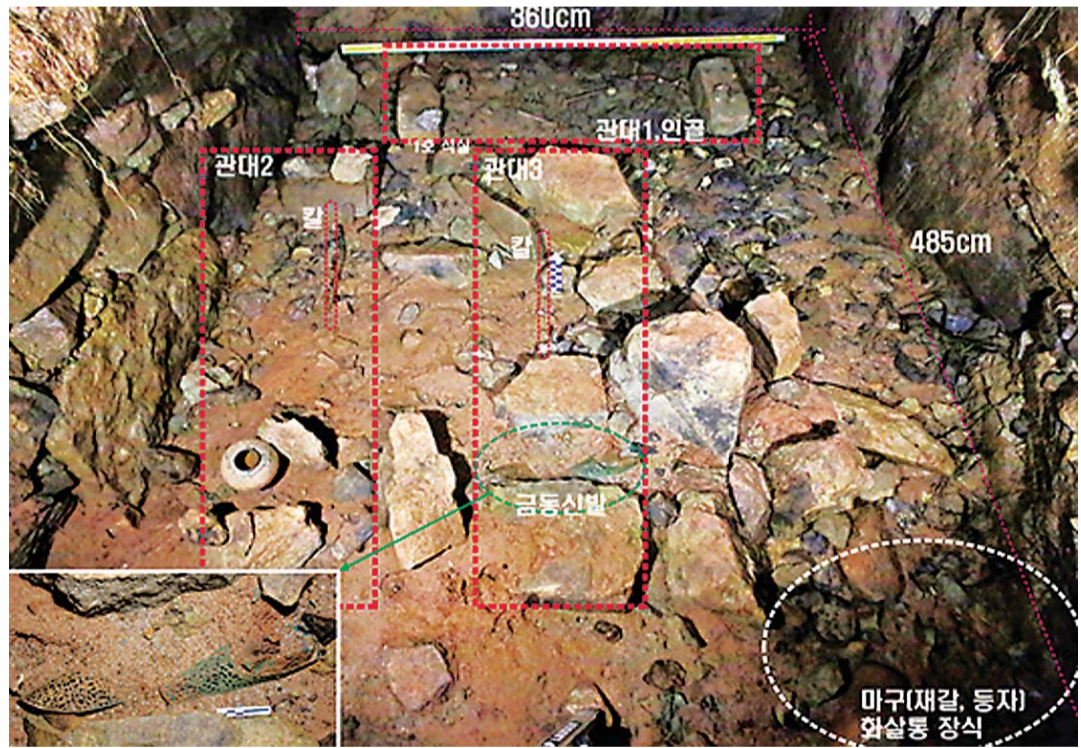
이 여성은 금동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
다량의 검정파리 번데기 껍질이 확인되었다. 검정파
리는 가을에 활동이 왕성하며 알에서 번데기로 변하
는데 6일 정도가 필요하다. 이 여성은 가을에 사망
한 후 최소 6일간 빈장을 치루었음을 알 수 있다.

죽은 이에 대한 인식과 의례는 시대에 따라, 지역
에 따라 다르다. 현대 사회에서는 화장이 일반화되
고 거주지에서 주기적으로 행해지던 개별 제사가
축소되면서 흔히 시제(時祭) 혹은 묘사(墓祀)라 부
르는 분묘제사가 커지는 것 같다.

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나 차례는 정해진 날
에 모시다보니 멀리 있는 친척들이 모이기 어렵기
때문에 많은 이들이 모이기 쉬운 날을 선택하여 분
묘제사를 지내는 것이다.

집안마다 사정이 다르고 인식이나 방식도 다르겠
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은 그 이전의 전통에서
변화된 것이다. 현재 우리가 전통이라 따르고 있는
것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해 나갈
것이다.

/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



◀영암 옥아리 방대형 고분 주구 유물출토 상황
▼나주 북암리 고분군 주구 출토 말뚝
(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발굴)



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.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

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
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
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

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

특수가발 별매(원터치) 테잎 X 핀 X
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
H.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~

062 673 5858 (모발모발)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

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(대광여고 옆)